

‘日 오염수 방류’ 불안감... 천일염 사재기 현실로

광주 마트 전년비 판매량 90% ↑
가격 치솟고 판매량 25배 이상 폭증
신안 생산업체 온라인 판매 중단
해수부 “강우일 줄며 생산량 회복”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전남 천일염의 사재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천일염 대표 생산지인 신안은 물량 부족으로 일부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 데다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광주지역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전날까지 한달간 천일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 늘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방류 시설 시운전을 시작하며 소비자의 심리적 불신이 커지면서 천일염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품귀 현상은 소금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안수협 직매장은 최근 2021년산 신안 천일염 1포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방류되기 전에 구매하겠다는 소비심리로 천일염, 즉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소금 매대에 일부 상품이 품절 상태다.

(20kg) 가격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6월 천일염 판매량은 81포대였는데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엿새 동안 판매량이 25배(2000포대)가량 폭증했다.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신안 천일염 업

체들도 주문량 폭주와 물량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신안의 한 소금 생산업체 관계자는 “소금 물량이 넘쳐 택배사에 남은 차가 없어서 배송이 지연되는 상태다”며 “납품처에서도 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다른 생산업체 관계자도 “평균 대비 수요가 4배 이상 늘었지만, 생산 라인이 감당하지 못해 2.5배 정도 더 생산하고 있다”며 “생산·가동 시간도 주 52시간을 가득 채워야 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체감된다”고 전했다.

신안의 한 업체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자 ‘온라인 판매’까지 중단했다.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태평염전은 자사 홈페이지에 ‘긴급 안내’ 공지를 통해 ‘맛있는 천일염(20kg)이 일시 품절 됐다’고 공지했다. 태평염전 측은 ‘주문량 폭주로 제품 포장과 택배 치량에 한계가 있어 배송이 최소 3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소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천일염 사재기가 우려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측을 의식한 듯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과 관련

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 “여러 차례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면서도 “다만 신안군 7개 농협·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 개인 구매가 크게 늘어 이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고,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전달보다 20%가량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8%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다행히 강우 일수가 줄고 일조량이 회복되면서 이달부터는 생산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 향후 생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조 ‘파업’ 돌입

임금 삭감·직원 해고 등 갈등
입원 일부 환자 타 병원 이송

단체 협약 승계로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조가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15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조는 오전 9시30분 출정식을 열고 호봉제 임금 체계 복원과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출정식에는 지부 소속 노조원 전체 97명 중 40여명과 기타 노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요양병원 로비에서 전야제를 갖고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빚고을 의료재단이 임금을 삭감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6명이 해고 당했다.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규탄한다”며 “위탁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내버리고 수탁기관의 행태를 묵인해 방조한 광주시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의 의료체계가 무너져 26명의 직원, 환자들의 피부병(‘움’)으로 추정)이 집단발병 했다. 고령의 요양환자들의 인권 또한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서 공공의료의 복원과 병원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 의료노조 광주요양정신병원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단은 수익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노조는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15일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보건 의료노조 광주요양정신병원지부의 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환자들이 전원되고 있다.

기준 대비 일정 부분 깎이는 점을 우려해 반발, 선전전을 벌였다.

그러던 중 재단은 최근 원무과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과도하게 선전전을 벌였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 A씨 등 노조원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재단은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A씨 등 6명에 개별적으로 해고 통보한 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단은 노조의 파업에 대응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파업이 장기화 되더라도 직장 폐쇄로 대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경우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원들이 주장하는 움으로 추정되는 피부병은 이날 시와 역학조사를 벌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